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 발사를 단행할 데 대한 명령 하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주체106(2017)년 7월 3일 대륙간탄도 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단행할 데 대하여 친필명령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준비를 끝낸 정형과 대책 보고를 승인하시였다. 7월 3일 발사하시였다. 2017년 7월 3일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이룩한 주체조선의 위대한 승리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 성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106(2017)년 7월 4일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시험발사를 앞두고 며칠간 로켓총조립전투현장을 계속 찾으시어 긴장한 전투를 벌리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발사준비과정을 세심히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 누구의 지원이나 기술이전에 의한 모방이 아니라 철두철미 우리의 과학기술에 기초한 개발창조의 길에서 새롭게 탄생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을 바라보시며 미남자처럼 들뜨고 잘 생겼다고, 정말 잘 만들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미제와의 기나긴 대결이 드디어 마지막최후계선에 들어섰다고,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는 미국에 똑똑히 보여줄 때가 왔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발사당일 이른 새벽 또다시 로켓시험발사장에 나오시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계획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오전 9시 주체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이 용암같은 불기둥을 내뿜으며 기운차게 발사되였다.

발사된 로켓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최대정점고도 2, 802km까지 상승비행하여 거리 933km 조선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로켓시험발사를 통하여 대륙간탄도로켓발사시 로켓의 발사대리탈특성과 능동구간에서 계단별 유도 및 안정화체계, 구조체계의 기술적특성들을 확



증하였다. 또한 1계단 대출력발동기의 시동 및 차단특성을 재확증하고 실지 비행조건에서 새로 개발된 비추진력이 훨씬 높은 2계단 발동기의 시동 및 차단특성과 작업특성들을 확증하였다.

이와 함께 새로 설계한 계단분리체계의 동작정확성과 믿음성을 검토하였으며 전투부분리후 중간구간에서 중량전투부의 자세조종특성을 재확증하고 최대의 가혹한 재돌입환경조건에서 말기유도특성과 구조안정성을 확증하였다.

특히 재돌입시 전투부에 작용하는 수천℃의 고온과 가혹한 과부하 및 진동조건에서도 전투부침두내부온도는 25~45℃의 범위에서 안정하게 유지되고 핵탄두폭발조종장치는 정상동작하였으며 전투부는 그 어떤 구조적파괴도 없이 비행하여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대륙간탄도로켓을 장착한 이동식발사대차의 기동특성과 발사준비공정의 모든 기술적특성들도 무기체계의 전술기술적요구에 부합된다는것을 확증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에서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영상표시장치에 현시

되는 대륙간탄도로켓의 비행상태를 구체적으로 지켜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의 시험발사결과를 분석하시고 완전대성공이라고 선언하시자 발사장은 이룰수 없는 뜨거운 격정과 환희로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오늘의 특대사건을 안아온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을 사랑의 넓은 품에 꼭 껴안아주시며 오래도록 기쁨을 함께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참으로 절묘한 시점에 거만한 미국놈들의 면상을 후려칠 중대한 결단을 내려주신데 대하여 통쾌함을 금치 못해하는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오늘 우리의 전략적선택을 눈여겨보았을 미국놈들이 매우 불쾌해하였을 것이라고,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할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이 지난 5월에만도 《화

성-12》형, 《북극성-2》형을 비롯한 새형의 전략무기들의 실전능력을 련이어 파시하고 이번에 또다시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까지 단번에 통쾌하게 성공시킴으로써 주체조선의 자주적존엄과 영웅적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고 우리 당의 절대적인 권위를 결사옹위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의 대성공은 장장 수십년세월 세기를 이어온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로 된다고 하시면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횡포한 도전과 겹쌓이는 시련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절대

적으로 지지하고 받들어온 위대한 조선인민에게 송고한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공화국이 원자탄, 수소탄과 함께 대륙간탄도로켓까지 보유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는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압박과 제재속에서도 강위력한 핵전쟁억제력을 튼튼히 다져놓은데 대하여 응당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궁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라고 힘있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한 전체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시며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사설 절세위인들의 통일유훈을 받들 어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안아 오자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역사적 문건에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그 날로부터 어언 23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겨레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그토록 로고를 기울여오신 아버지주석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리며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민족의 아버지의 통일애국의 지가 비껴있는 불멸의 친필을 우러른다.

《 김 일 성 1994. 7. 7. 》

민족의 아버지의 애국유지가 맥맥히 살아남는 친필은 아홉글자, 허나 이 아홉글자의 글발속에 조국과 민족을 그토록 사랑하신 절세의 애국자, 조국통일을 필생의 념원으로 간직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전설적위인의 고귀한 한생이 집대성되어있음을 온 겨레는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분열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은 무엇보다도 가슴아파하시였으며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려고 생의 마지막시각까지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

조국통일은 아버지수령님의 최대의 념원이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하나의 조선로

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민족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였으며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오시였다.

해방직후 미제의 《단선단정》책동이 로골화되고있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속에 력사적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편석회의가 마련되고 여기에서 일치한 합의가 이룩되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이 안아온 빛나는 승리였다.

내외분렬주의자들의 《두개조선》 조작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던 준엄한 정세속에서 온 겨레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불리일으키신분도 위대한 수령님이시였으며 언제나 하나의 조선만을 생각하시며 뜨거운 동포애와 불변의 통일의 지로 북과 남사이애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어주시고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마련하신분도 아버지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심장의 마지막박동으로 남기신 불멸의 통일친필은 민족의 통일위업실현을 위한 길에서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통일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주석님의 통일한생의 고귀한 증표이다.

하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친필종합이 새겨진 마지막비문건을 민족만대에 길이 전해갈 귀중한 국보로 잘 보존하도록 하시고 판문점에 만년대계의 친필비를 세우도록 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쳐 조국통일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며 조국통일의 주체적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원장으로 정식화하시고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북남관계와 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수 있는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실 구상을 안으시고 애국의 대용단으로 두차례의 평양상봉을 마련하시여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마련해주시였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통일시대를 펼쳐 놓으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 집대성되어있는 고귀한 력사의 친필이 그대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서명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활달한 친필로 이어진것이다.

오늘 우리 겨레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절세위인들의 통일유훈을 받들어 발걸음도 힘차게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마중해가고있다.

이 거족적진군에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조국통일3대원장을 자주통일의 기치로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나가야 한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통일문제를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는 근본원칙과 방도를 천명하고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민족대단결의 원칙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 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명시하고있다.

조국통일3대원장에는 나라의 통일을 기어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룩해나가기려는 아버지수령님의 투철한 민족자주정신과 숭고한 민족애가 구현되어있다. 그것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겨레가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이다.

조국통일3대원장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갈 때만이 우리 겨레는 그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단 한치의 탈선도 없이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떠밀어 나갈수 있다.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하고 리행해나가야 한다.

북남공동선언들은 북남수뇌분들이 마련하고 온 겨레와 세계가 지지찬동한 새 세기 자주통일의 리정표이고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년대를 거치며 각급에서 이룩된 북남합의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있으며 그것은 북남관계의 근본원칙과 기초를 이루고있다. 지나는 북남관계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그 리행을 거부하면 북남관계가 파국에 처하게 되고 종당에는 충돌과 전쟁밖에 일어날것이 없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고있다.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는 여기에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밝은 길이 있다. 온 겨레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거족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오늘 공화국이 틀어진 자위의 핵은 미국의 침략위협을 막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통일에국의 보검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이 세기를 이어 계속되고 그 침략책동, 핵위협이 날로 더욱 엄중해지고있는 지나온 나날과 오늘의 현실은 공화국의 핵보유의 길이 자기자신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천만번 정당할 길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며칠전에 진행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의 시험발사성공은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켓맹주국으로 솟아오른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는 그 누구도 허물수 없으며 필승의 선군정치가 있어 이 땅의 평화가 수호되고 자주통일도 앞당겨지고있다는것을 더욱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과 살인의 원흉인 미국은 공화국의 정당한 자위의 억제를 그 무서운 《위협》이니 뭐니 하며 시비증상하며 비렬한 제재와 압박수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이것은 반미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아가는 공화국을 어떻게 하나 무장해제시키고 압살해버리는 마지막 필사의 몸부림이며 뒤흔들리는 미국식 약육강식의 세계질서를 지탱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지배권을 확립해보려는 범죄적기도의 산물이다.

조선반도와 세계를 위협하는 미국의 방대한 침략의 핵무기

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기는 조선이 틀어진 정의의 핵은 문제시하는 미국의 얼토당토않은 꾀변에 맞장구를 치며 비렬한 제재수동에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날치는 남조선당국은 제손으로 민족의 안전을 해치고 북남관계에도 엄중한 해를 끼치고있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애국위업을 가로막아나서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은 악랄하지만 통일애국세력이 분렬매국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력사의 막을수 없는 흐름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투쟁의 진두에는 또 한분의 선군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서계신다.

주제 101(2012)년 3월 판문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친필비의 글발을 한글자, 한글자 주의깊게 바라보시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길이 빛내여가실 굳은 의지를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불멸의 통일대강들이 밝은 빛을 뿌려주며 우리 민족끼리를 진리로 새겨안은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통일애국력량이 있어 자주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절세위인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3대원장과 북남공동선언들을 기어이 관철하여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반드시 안아오고야말것이다.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절절한 경모심이 인민들의 마음속에서 뜨겁게 분출되는 7월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을 찾아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신 위대한 주석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은 세월이 흘러도 더욱 강렬하여지고있다.

인민들의 집을 찾으시면 쌀독과 가마뚜껑을 먼저 열어보시며 생활형편을 알아보시고 아이들을 만나시면 책가방안의 교과서와 연필을 살펴보신 주석님이시다.

인민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공장과 농촌, 탄광과 광산, 어촌들을 찾으시여 인민들의 이야기를 청담하며 들어주시며 그들과 정사도 의논하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도 하시며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신 위대한 주석님은 인민적정치가의 빛나는 귀감이시다.

언제인가 그이를 만나뵈은 자리에서 자본주의나라의 한 정책이 드린 물음이 있다. 《어디에 가든지 《이 언젠가는 우리의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일떠선것입니다.》라든가 《이 과수원은 전쟁을 하고있을 때 수령님께서 전쟁이 끝나면 만들자고 교시하시고 또 지도해주셨기때문에 생겼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것이 《김일성주석님의 지도》로 되었다고 하는데 주석님께서는 언제 그런 전문기술들을 공부하셨습니까?》

그의 호기심을 풀어주시려는 듯 호방하게 웃으신 주석님께서는 농민들이 나를 보고 여기는 조건이 좋으니까 파일이 잘 자란다고 가르쳐주고 건설부문 일꾼들은 여기에 언젠개 쌓으면 물이 고여 관개용수로 쓸수 있다고 가르쳐준다고 대답하시였다.

너무도 통속적이고 너무도 자신을 낮추신 겸허한 그 이야기속에 인민을 스승으로, 전지전능한 존재로 여기신 그이의 숭고한 인민관이 집약되어있는것이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인민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는 어린이의 심정이 되어주시고 로인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허물없는 친구가 되어주시였으며 다심한 어머니와도 같이 사람들의 속생각까지 다 헤아려주시는 주석님이시다. 그이께서는 로동자들을 만나면 그들의 기쁨물은 손을 잡아주시고 농촌에 가면 밭머리에서 농민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시였으며 사람들을 만나 담화하실 때에는 룡담도 즐겨하시고 유모아와 생활적인 말씀도 하시였다.

인민들이 조밥을 먹을 때에는 우리도 조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며 잡곡밥을 달게 드신

이, 어촌에 가면 어부들과 함께 만져보신 그물, 탄광에 가면 탄부들을 석탄층산으로 불러일으키신 숭고한 자취가 눈앞에 밝혀온다.

위대한 생의 마지막 시기인 주제83(1994)년 7월 어느날 경제부만 책임일군회의회를 지도하시던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나는 지금까지 인민을 믿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인민들속에서 살아왔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함께 있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바로 이런분이 시기에 주석님께서 해방직후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무려 2530여일간, 근 7년세월과 맞먹는 일요일과 명절날들을 현 지지도의 길에 계시였다.

위대한 주석님의 고귀한 생애를 함축할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인민들속에서, 이 한마디라고도 할수 있다.

어느 한 시인이 인민은 수령님을 태양으로 받들어도 수령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인민들속에 계시였다고 노래한것처럼 주석님의 한평생은 언제나 인민과 함께 계신 은혜로운 아버지의 한생이였다.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시고 커가는 인민의 행복을 자신의 락으로 여기신 위대한 주석님의 인민사랑의 력사가 있어 이 땅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대화원이 펼쳐질수 있었것이다.

박현숙

한평생 인민들속에서

곳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찾고 찾으시며 해방직후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걸으신 길은 무려 144만 5000여리에 달한다.

백두산에서 한나산까지 301번 왕복한것과도 같고 지구를 1바퀴반이나 돌수 있는 거리와도 맞먹는 그 길을 걸으시며 주석님께서 찾으신 단위는 무려 2만 600여개를 헤아린다.

조국의 북단 온성지구로부터 남단의 분계연선마을까지, 서해의 간석지마을로부터 동해의 자그마한 바다가마울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주석님께서 이어가신 현지도의 자욱자욱은 그대로 온 나라 집집에 닿는 뜨거운 사랑이었다.

어린이와 이야기할 때에

이야기, 한낮이 기울 때까지 협동별들을 돌아보시느라 늦게야 열차에서 뚝방냄이로 점심식사를 하신 이야기, 인민을 위한 길인데 무엇을 가리겠는가 하시며 신발이 감랑속에 쑥 빠지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간석지에 첫 길을 내신 이야기...

지금도 만경대갈림길에서 먼 해방된 조국에 개선하시여 꿈결에도 그리시던 고향을 곁에 두시고도 강선의 로동자들부터 먼저 찾아가신 주석님의 모습이 어려오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가면 무너진 벽체우에 앉으시여 폐허를 하루빨리 가시라고 하시던 그이의 절절한 음성이 들려오는 듯싶다. 농촌에 가면 수령님께서 농민들과 농사일을 의논하시며 앉으시였던 수수한 명석

주제 63(1974)년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평양을 방문한 미국주재 남조선 《유엔대사》였던 림창영 선생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림창영 선생에게 먼 이국땅에서 통일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는 분이라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우리 함께 허심탄회하게 민족의 전도와 통일문제에 대하여 의논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그이를 뵈오는 순간부터 선생의 뇌리에는 위대한 주석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많이도 보아온 정객이나 위인들과는 판이하게 다른분이시라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사실 그가 평양을 방문하게 된데는 그럴만 한 사연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어느날 림창영선생은 미국에 와 있던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교수와 조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받았다.

《조선의 위대한 김일성장군은 어떤분이십니까?》

그때 림창영선생은 아인슈타인의 이 질문에 만족한 대답을 주지 못하였다. 사회정치학자로서 림창영선생에게는 항일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에 대하여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았던것이다.

1955년 림창영선생과의 마지막상봉시에도 아인슈타인은 조

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존경하는 김일성주석님에 대하여 또다시 문의하였다. 당시 위대한 주석님의 존함과 높은 명성은 지구의 서쪽끝인 미국땅에 사는 물리학자도 관심을 가질만큼 세상에 자자했던 것이다.

림창영선생은 이때에야 자기 자신이 알고있는 위대한 주석님에 대하여 민족의 미래와 결부시켜 설명하였지만 자기로서도 위대한 주석님에 대하여 깊이 알고있지 못하다는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그후 림창영선생은 오랜 세월 위대한 주석님에 대한 간절한 흠모로 가슴을 불태워왔으며 결국은 평양방문을 하게 되었던것이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이날 림창영선생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우리 함께 손을 맞잡고 하루빨리 통일을 이룩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림창영선생은 그이의 말씀이 너무도 고마와 눈물을 흘리며 주석님이 《민족의 사표(덕행)이 높아 스승으로 되는 사람》로 삼고 눈에 흠이 들어가는 날까지 통일성업에 매진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후 림창영선생은 여러 차례나 위대한 주석님을 만나뵈고 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그이의 가르침을 받아안았으며 자기의 여생을 초물처럼 태우며 애오라지 통일을 위해 살았다.

본사기자

해외동포학자도 만나주시며

통 일 친 필 은 길 이 빛 난 다

주제 83(1994)년 7월 7일 산새들도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어둠새벽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집 무실창가로는 불빛이 흐르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책상 위에 놓인 부피 두터운 문건을 번지시며 깊은 사색에 잠겨계시었다. 그 문건은 반세기를 가까이하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될 북남최고위급회담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이었다.

수령님께서는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이 열릴 전야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으시고 어떻게 하면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성과적으로 치르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며 문건을 한 페이지 한페이지 번지시며 다듬으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문건의 마지막페이지를 넘기시었다. 그러시고는 펜을 드시었다. 미구에 도래할 증대사변의 시각을 예감하시며 그이께서는 겨레의 마음의 무게로 그 문건에 힘주어 쓰시었다.

《 김 일 성 1994. 7. 7. 》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각에 남기신 이 친필은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크나큰 심혈의 고귀한 증표이다.

친필은 불과 아홉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는 수천수만자의 비문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 뜻이 담겨져있다.

우리 겨레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 하시며 나라의 통일을 위해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 이시다.

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백두산에서 싸울 때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지금은 나라를 통일시키지 못해서 못 자고있다고, 나도 통일이 된 다음에는 밀려던 잠을 한번 푹 자보려고 한다고 뜨겁게 말씀



하시었다. 해방직후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단선단정》 음모가 벌어지던 엄혹한 시기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런석회의를 마련하시어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숭고한 전통을 마련해주신 수령님이시었다. 그이께서 해마다 보고와 연설, 담화를 통하여 천명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로선과 방침, 방안과 제안들은 무려 수백여건에 달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시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어 겨레가 통일의 길에서 끝까지 높이 들고나갈 휘황한 통일대강을 마련해주시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통일문제를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는 근본원칙과 방도를 천명하고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으며 고려민주연방

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명시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로선은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민족자주의 로선이며 통일조국의 부강발전과 전민족의 흥성번영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로선이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이 있어 우리 겨레는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뚜렷한 목표와 방도,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올수 있었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어 그 실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시려는 일념에서 판문점에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수령님의 통일친필비를 세우도록 해주시었다.

1996년 11월 24일 판문점을 시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에 새겨진 아홉글자의 친필을 보고 또 보시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현장으로 정립해주시었다. 그날 우리는 수령님의 념원대로 조국을 반드시 통일하여야 한다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었는데 나는 조국을 통일하고 통일된 조국을 우리 인민들에게 반드시 선물로 주려고 한다고 교시하신 장군님이시다.

판문점의 통일우리는 수년후 역사적인 평양상봉으로 이어졌다.

온 겨레와 행성의 이목이 집중된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던 어버이주석님을 그리시며 남측당국자와 그 일행에게 김일성주석님께서 생존해 계셨더라면 제가 아니라 우리 주석님께서 김대통령을 맞아 주셨을것이라고, 사실 북남최고위급회담은 주석님께서 생존해계실 때 실현하시려던 것이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이렇듯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필생의 위업으로 받아안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두차례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될수 있었고 우리 민족끼리를 리념으로 하는 격동과 환희의 6.15통일시대가 펼쳐질수 있었다.

조국통일과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업과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이어지고 빛나고있다. 사상도 령도도 덕망도 품모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5년전 판문점을 찾으신 그날 한평생 나라의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줄 철석의 의지를 다지시었다.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광장의 높은 연단에서 력사적인 첫 연설을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선언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보고에서 조국통일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조선로동당앞에 나선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통일로선과 투쟁방침을 천명하시으로써 자주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올해신년사에서 도 그이께서는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련대련합하고 단결하여야 하며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가야 한다고 천명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할데 대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선군의 보검을 더욱 역척같이 다지시어 내외호전세력의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안녕을 수호하시며 겨레의 자주통일위업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백두령장의 기상에서 온 민족은 자주통일의 그날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불멸의 통일대강들인 조국통일3대현장과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우리 겨레의 앞길을 밝혀주고 문무를 겸비하시고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이 땅우에는 머지않아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국이 우뚝 솟아오르게 될것이다.

리철남

수령님들의 통일유훈을 받드시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민족의 화해와 나라의 통일을 앞당겨오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지금으로부터 다섯해전 3월 내외반통일세력이 강행해 나선 대규모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던 그 시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의 땅 판문점을 시찰하시었다.

위험천만한 최전방에 나가신 그이께서는 위대한 주석님의 통일친필비를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주석님과 장군님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회

고하시었다. 그날 원수님께서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물리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의 력사가 깃들어있는 정전담판회의장과 정전협정조인장, 우리 인민의 통일의지가 반영된 판문각과 통일각을 잘 보존관리하여 통일된 조국에서 살게 될 후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어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어 온 겨레를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넓은 길로 이끌어가고계신다.

위대한 주석님 탄생 100돐경

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을 비롯하여 그이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전체 조선민족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을 받들어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게 하시려는 역척의 의지가 력력히 어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현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

성되어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현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올해신년사에서 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돐과 10.4선언발표 열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그이의 열화같은 애국애족의 호소는 우리 겨레에게 조국통

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우리 겨레에게 크나큰 민족적자부심과 필승의 신심을 주고 내외반통일세력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린 첫 수소탄 시험에서의 성공,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와 지상대 지상증장거리전략탄도코트 《화성-12》형시험발사의 대 성공에 이어 최근 또다시 대륙간탄도코트 《화성-14》형시험발사에서 완전대성공할수 있는것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가져온 5천년민족사의 특대사변이다.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이런 경이적인 사변들을 지켜보며 남녘겨레들은 《세기적명장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어 머지않아 조국통일의 새 아침이 밝아올것이다.》라고 확신하고있다.

통일의 앞길에 의연히 엄중한 장애와 난관이 가로막혀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아가는 길에 자주통일위업의 승리와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것이 오늘 우리 겨레가 다시금 새겨안게 되는 철의 진리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장 시

삼 천 리 에 빛 나 라 통 일 친 필 비 여

—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3돛에 즈음하여 —

김 태 룡

세월은 가도 가슴에 남아
추억의 심금 울리어주는것
그리움이라 하던가
그 그리움은 세월도 지울수 없는
못 잊을 화폭이던가

한평생 겨레를 위해 사시여
오늘도 겨레의 마음속에 계시는
어버이 우리 수령님
7월의 하늘도 그리움의 하늘
7월의 강산도 그리움의 강산

이 절절한 그리움안고 우리 마음
관문점통일친필비앞에 서나니
급시 수령님 에 오시여
붓을 들어 남기신듯
아침이슬 머금어 생생히 살아오는 글발

《 김 일 성 1994. 7. 7. 》

한자한자 더듬어 목이 메이누나
수령님 짧은 순간에 쓰시였어도
그 순간을 위해 바쳐오신
성스러운 통일한평생
심혈과 로고의 그 해와 달이 어려와

우리러 생각깊은 통일친필비여
뜻깊은 수령님의 저 친필은
평생 겨레를 품안아 부어주신
수령님 사랑 아버지의 정 아니더나
심장에 높뛰신 애국애족의 뜻
그 열렬한 뜻으로 숭엄한것 아니더나

통일, 그것은
수령님 바라신 최대의 념원
그이 가슴속에 꺼짐없이 타오른 열망의
불길
오, 수령님 한생토록
그리도 많이 외우신 말 있다면
통일, 통일이 아니던가

이 나라 산천에 줄줄이 뻗어있는
무수한 길들을 생각깊이 바라보노라
통일때문에 수령님 아니 걸으신 길 없고
깊은 밤 하늘가의 별들에 물어보라
통일때문에 수령님 아니 지새운 밤 없나니

그날은 언제였더나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신 날
나라일 잘되어 근심 없으시련만
무슨 심려 안으셨는가
자정이 넘도록 잠 못드신 수령님

어서 쉬시기를 간청드려 그 몇번
어이 알수 있었으랴
남녘동포들 생각 사무치시여
분렬된 이 땅이 가슴 터져와
밤을 잊고 불을 끄지 못하신텐

—어쩐지 잠이 오지 않소
나라를 통일시키지 못했으니
더 못자고있소
통일된 다음 밀렸던 잠을
한번 꼭 자보고싶소

아, 가슴치는 이 말씀
통일때문에 나라의 분렬때문에
한생 밤이란 모르고 사신 어버이
밀렸던 잠 한번 꼭 자고싶다신
너무도 소박한 그 소망
끝끝내 풀지 못하신 수령님이시였다

밤이 되면 남조선인민들 생각
더더욱 간절해진다고
남녘하늘 오래도록 바라보신
그 밤은 세월이여
너의 갈피 그 어디에 새겨져있고

풍어의 기쁨 누를길 없으시여
홍겨운 바다의 노래 부르시다가도
문득 남녘이 떠올라

노래의 끝을 채 맺지 못하시던
말해다오 세월이여 그 밤은 언제였더나

누구는 밤을 안식이라 했다
누구는 아픔과 고통을 잠재워주는
밤이란 고요한 안정이라 했다
허나 수령님에게 밤은 통일을 위해
심신을 태우시여 모든것 다 바치신
무한한 심혈과 로고의 세계

그 천만헌신의 밤과 밤이
7월의 밤에로 이어졌나니
그 밤이라고 달리 흘렸으랴
머지않아 도래할 조국통일의 대사변
력사의 새 아침 안아오시려
교박 한밤을 지새우신 수령님

고통으로 모대겨온 분렬의 력사
그 갈피갈피를 다시 번져보시는가
통일을 위해 바쳐온 많은 피와 땀
겨레의 피땀한 숙망을 헤아려보시는가
부피 두터운 문건 번져가시며
사색에 사색을 이어가시였거니

이윽고 새날이 밝아 동터오는 려명
크나큰 격정과 흥분을 안고
통일된 삼천리를 다 밝아보시듯
집무실을 거니시던 수령님 창을 열으실 때
겨레앞에 열리는가 통일의 새 아침은

—우리 겨레가 일일천추로 고대하던
조국통일은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왔소

확신에 넘치시여 터치시던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
북남최고위급회담과 관련한
그 문건우에 뜻깊은 친필 남기실 때
겨레여, 수령님 지으신 환하신 미소
그처럼 밝은 미소 그 언제 비온적 있었던가

한시도 잊고사신적 없는 통일
어느 하루도 떼어놓으신적 없는 겨레
아, 통일의 전환적국면 열리게 되는
그 감격 그 환희에
처음으로 무거운 시름 내려놓으시였나니

백두산을 내려 해방의 첫 기슭에서부터
통일을 이루시려 불같이 사시며
분렬을 이기는 힘이 되시고
삼천리를 품은 태양이 되시고
겨레의 은인이 되신 우리 수령님

오죽하셨으랴
한해한해 분렬의 세월 길어질수록
가슴에 무겁게 얹혀지던 심혈의 무게
평생 덜지 못하신 그 무게는
그대로 돌로 갈라진 강토
분렬에 사는 겨레의 운명이였다

생각해보라 겨레여
팔순의 고령에도 통일을 위해
쉬임없이 줄기차게 살아오신 수령님
얼마나 힘에 겨우셨으랴 하는 생각에
오늘도 가슴 젖는 우리 겨레 아니더나

그 헌신 그 고생 다 잊으신듯
통일을 그려 신심의 미소 지으시던 수령님
알고나 뵈웠던가
그 7월의 미소속에 물어두신
깊고깊은 사연 무엇이였는지

나라가 분렬되어 처음 열리게 될
북남최고위급회담
막중한 과로 풀지 못하신 수령님
더우기 무더운 7월에 어이 회담 하시랴
회담을 7월뒤로 미루었으면 하였건만

회담을 빨리 하자는데 대해서는
조금도 반대가 없다고
당장 7월초에 해도 좋다고
드리는 간곡한 당부 만류하시며
거듭 이르신 수령님

일없다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일인데
건강은 무슨 건강인가고
날자를 하루라도 앞당기면
그만큼 통일이 빨라진다 하셨나니

아, 그렇게 사시였다 수령님은
애오라지 통일을 위해 겨레를 위해
성스런 생애의 그 마지막날까지
한몸의 열과 헌신을 강그리 바쳐
불처럼 뜨겁게
강철처럼 강의하게...

민족을 살리는 진로 밝혀주시여
겨레의 운명 보살펴주신 그 은공
한몸을 태우신 빛과 열로
분렬의 어둠 가셔주신 그 은애
세월의 한끝까지 전한들 다 전하랴

통일때문에 머리가 희어졌다고
통일만 되면 10년은 젊어질것 같다고
그리도 절절한 심중 터치시던 수령님
속도 많이 쓰시고 애도 많이 태우신
그이께 통일은 무엇인가

정녕 통일은 그이께 무엇이기에
누구보다 심장을 바쳐 사랑하시고
피끓는 열정과 진할줄 모르는 힘
온넛을 기울이셔야 했던가
심장의 마지막박동까지 바치셔야 했
던가

불멸의 그 친필 붓을 들어 남기셨으랴
가슴속 더운 피로 새기신
뜻깊은 아홉글자여
하나된 강토 하나된 민족을 위해
수령님 바쳐오신
통일한생이 응축된 태양의 글발이여

하기에 우리 장군님
관문점에 오셨던 날
수령님의 친필 보고 또 보시며
추억깊이 뜨거이
격정속에 말씀하시지 않으셨던가

—비에 새겨진 수령님의 친필은
불과 아홉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 담겨진 뜻은
수천수만자의 비문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것입니다

다시 우러르노라 통일친필비
목매여 읽고 또 읽노라 수령님의 친필
언제나 남녘에 마음을 두고사신
수령님 그 마음 헤아려
남녘과 제일 가까운 곳에
이 비를 세워주신 장군님의 고결한 뜻이여

위인의 력사 위인의 위업
당대를 벗어남이 없다했지만
아니여라 수령님 통일위업
거룩한 위인의 통일력사는
장군님 계시여 꽃같이 이어져 흘러왔거니

화강석비돌에만 새기지 않으시였다
자신의 심장 깊은 곳에
수령님 통일친필 새겨안으시고
장군님 한생토록 견고걸으신
위대한 통일장정의 길

그 길엔 있어라
수령님 한평생 사랑다해 품으신 겨레
전쟁의 불구름 막아 지켜주신 사랑이
그 길을 따라 왔어라
조국통일3대헌장 그 기치 추켜드시여
수령님뜻으로 펼친 6.15자주통일시대가

세월의 풍상도 지울수 없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통일헌신의 자욱자욱
력력히 새겨져 빛을 뿌리는 이 강토
그 자욱에 거룩한 자취 이으시는
민족의 걸출한 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어제런듯 삼삼해라
원수님 찾으셨던 관문점의 3월
줄곧 수령님 생각으로 달려오신 길
3월의 불길 그이 오셨어도
마음속엔 7월의 여름이 흘렀다

수령님앞에 서시듯
경건히 원수님 바라보신 통일친필비
그이 심중에 굵이쳐흐른것
통일을 위해 바치신 수령님 한생이었으리
그 한생에 드리는 다함없는 경모였으리

사무치는 그리움만이였으랴
못 잊어 안아보시는 추억만이였으랴
아는가, 겨레여
수령님들의 통일위업 반드시 이루실 응지
저 하늘이 아니라
원수님 가슴에서 봄우뢰로 울리였음을

그 의지 그 신념 안으시고
관문각로대우에 결연히 나서시여
쌍안경을 들고 바라보신 남녘땅
그이의 안광에 비껴온것은
기어이 안아오시고야말 통일삼천리

관문점에 빛발친 원수님의 신념
그이의 그 신념은
가장 열렬하고 가장 굳건한
의지의 분출 역척의 산악이나니
겨레여, 우리 그 뜻에 얼마나 가슴 들먹였
던가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통일 이룩하는것
바로 이것이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 의지라 천명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연단에서도
새해신년사를 하실 때에도
그이 밝혀주신 통일의 방략들은
오직 수령님들의 뜻대로!
오직 수령님들의 통일사상대로!

이 길에 민족이 살길 있고
이 대강에 통일의 진리 방략이 있기에
겨레는 따르며 받든다
통일의 리정표 통일의 기치로
조국통일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한결같은 겨레의 민심
한사코 거스르려 갖은 발악 다해대도
정의로 흐르는 력사 되돌려세우려는
부정의란 언제나 무색한것
진실을 이긴 거짓은 자고로 없다

외세에 매달려 민족문제 구결하는
비굴한 사대매국의 추태
전쟁의 불구름 몰아오며
이 땅의 평화를 말살하는 광기
분렬에 운명을 건 반통일의 죄악에
차례진것은 쓰디쓴 파멸의 선고장

하나가 된 강토에서 살기를 원하고
오매불망 통일을 바라는 겨레여
너무도 오랜 세월 피땀히게 안고산
분렬의 아픔 헤어져 사는 고통
영영 끝장내실 조국통일의 구성
원수님 받들어 하나된 통일강국 일떠세
우자

그이만이 통일친필비에 새겨진
그 7월을 통일의 새날로 이으시고
그이만이 수령님들의 통일유훈
민족의 숙망 조국통일을
이 땅 삼천리에 펼칠수 있거니

수령님 통일업적의 기념비로
겨레의 가슴에 솟아 빛나는 통일친필비
7월이여 길이 전하랴
수령님의 통일력사는 오늘도 흐른다고
원수님 계시여 통일은 이 땅에 밝아온다고

최후승리를 선언하는 조선의 《축포》

적대세력의 전대미문의 정치공갈과 경제봉쇄, 대조선 핵공갈책동이 극도에 이르고 있는데 맞게 공화국의 핵능력과 고도화조치는 최절정에 달하고 있다.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안아올 철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새형의 전략무기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탄생하는 속이 며칠전 세계를 놀래우며 우리 식으로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7월 4일 오전 9시 거대한 폭음을 울리며 대지를 박차고 발사된 로켓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최대정점고도 2802km까지 상승비행하여 거리 933km 조선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로켓 시험발사를 통하여 대륙간탄도로켓발사시 로켓의 발사대리탈특성과 능동구간에서 계단별 유도 및 안정화체계, 구조체계의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였다.

또한 1계단 대출력발동기의 시동 및 차단특성을 재확증하고 실지 비행조건에서 새로 개발된 비추진력이 훨씬 높은 2계단발동기의 시동 및 차단특성과 작업특성들을 확증하였다. 이와 함께 새로 설계한 계단분리체계의 동작정확성과 믿음성을 검토하였으며 전투부분리후 중간구간에서 중량전투부의 자세조종특

성을 재확증하고 최대의 가혹한 재돌입환경조건에서 말기 유도특성과 구조안정성을 확증하였다.

특히 재돌입시 전투부에 작용하는 수천℃의 고온과 가혹한 과부하 및 진동조건에서도 전투부침두내부온도는 25~45℃의 범위에서 안정하게 유지되고 핵탄두폭발조종장치는 정상동작하였으며 전투부는 그 어떤 구조적과피도 없이 비행하여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대륙간탄도로켓을 장착한 이동식발사대차의 기동특성과 발사준비공정의 모든 기술적 특성들도 무기체계의 기술적 요구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만리창공에 아름다운 비행운을 새기며 주체조선의 군력을 시위한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의 완전대성공은 참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번에 진행된 시험발사는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경사, 특기할 사변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은 지난 세기 화승총 하나 변변한 것이 없어서 외세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나라를 찾겠다고 의병운동, 독립군활동도 하고 3.1인민봉기와 6.10만세시위도 벌여보았지만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의 총칼에 의해 처절한 실패와 좌절을 면치 못했다.

지난날의 이 쓰라린 과거는 우리 겨레에게 강위력한 무장

력을 가지는 것만이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생존권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뼈에 새기게 하여 주었다.

그러던 우리 민족이 지금은 악의 소굴인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켓을 가지게 되었으니 어찌 경이적인 사변이 아니겠는가.

어제날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의 대상이었던 공화국인민들이 오늘은 당당한 핵강국의 주인이 되어 미국에게 핵공포를 안겨주며 자주적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과시하고 있다.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공화국은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더욱 앞당기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공화국을 세기를 이어 위협해왔다. 해마다 미국은 핵전략폭격기, 핵전략잠수함, 항공모함전단을 비롯한 첨단무장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침략전쟁연습소동에 광분하며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공화국은 자위의 핵으로 폭제의 핵을 무자비하게 짓몽개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공화국은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최종관문을 보란듯이 통과하게 되었다.

공화국이 원자탄과 수소탄, 전략잠수함 탄도탄,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을 보유함에 이어 대륙간탄도

로켓까지 가진 명실상부한 동방의 핵강국, 로켓맹주국으로 세계에 찬란히 빛을 뿌리게 된 것은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 천리해안의 예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결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날로 가중되는 적대세력의 침략 위협에 대처하여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면서도 핵무력을 최단기간에 급속히 강화할 수 있게 하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그이께서는 미제의 핵공갈에는 무자비한 핵공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미제가 핵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는 시대를 영원히 끝장내야 한다고 하시었다.

이를 위해 첫 수소탄시험과 핵무기병기화사업,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시험 등 새로운 전략무기들을 개발할 때마다 몸소 현지에 나가서 세심한 지도를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주체무기개발에 자기의 온넉과 지혜를 바쳐가고 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 주시고 비범한 과학적통찰력으로 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명철한 가르치심도 주시며 새형의 첨단무기개발사

업을 지도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는 한두 마디의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우리 식의 전략무기개발사업을 가장 중차대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무수한 헌신의 낮과 밤을 보내시며 로켓공정부문이 명실공히 개발창조형공업으로 확고히 전변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러시고도 새 전략무기들이 개발완성되었을 때에는 모든 공로를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돌려주시며 한푼에 안이 기념사진도 찍어 주시고 평양에 불러 만사람의 축하속에 연회도 마련해주시었다. 공로있는 과학자를 업어까지 주시어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시었다.

이 사랑, 이 믿음이 있어 고도로 정밀화, 다종화된 핵무기들과 핵라격수단들이 상상할 수 없이 비사히 빠른 속도로 개발 완성되어나갈 수 있었다.

이번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밤중과 이른 새벽도 가림없이 로켓총조립점 투현장을 찾고 찾으시며 새형의 첨단로켓개발의 초행길을 앞장에서 헤쳐주시었다.

그이의 이렇듯 끝없는 헌신과 로고, 세련된 령도가 있어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가 단번에 통쾌하게 성공하는 세기적인 기적이 창조될 수 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공화국이 원자탄, 수소탄과 함께 대륙간탄도로켓까지 보유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지위는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다고 하시면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힘있게 말씀하시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우리 식의 최첨단 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완성하려는 것이 공화국의 확고한 결심이고 드림없는 의지이다.

미국이 그 무슨 압박을 운운하며 조선반도 주변에 핵전략장비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우리 국가를 위협공갈하고 있지만 핵없는 나라, 힘이 약한 민족만을 플라 군사적으로 통략하는 미국의 허장성세가 공화국에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미국이 분별을 잃고 우리 공화국을 건드린다면 세계가 알지 못하는 미증유의 초강경대응에 의하여 만회할 수 없는 종국적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최강의 핵과 그 운반수단들을 다 보유한 공화국은 머지않아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의 축포를 자랑스럽게 쏘올리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인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성공을 경축하는 평양시민들

존엄높은 주체의 핵강국의 공민된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 주었다

각계층 군중들 환희의 격정 도로

강위력한 핵무력 위에 평화도 있고 부강번영도 있으며 인민들의 행복한 삶이다.

이번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에서의 완전성공은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략적로선의 정당성을 힘있게 과시한 것으로 된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병진로선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전략》이니, 조선반도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옳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병진로선을 헐뜯고 우리를 무장해제시켜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묶혀 경제건설에서도, 국방건설에서도 령이 통장훈을 부르고 있다. 얼마전에도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알리는 우리

식 대륙간탄도로켓의 장엄한 비행운을 우주에 새기었다.

기나긴 세월 우리를 핵으로 위협해오던 미국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을 위력한 타격수단을 가지게 됨으로써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이 항복서에 도장을 찍는 일만이 있을 뿐이다.

위대한 병진로선은 곧 조선민족의 승리이다.

사회과학원 실장 김철순

지금으로부터 64년전 전승의 광장에서 목청껏 만세를 부르던 그날의 감격이 어제런듯 삼삼히 떠오르는 7월이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이룩된 빛나는 7월의 승리가 백발을 엮은 나의 가슴에 청춘의 활력을 부여주고

다. 대지를 박차고 우주로 치솟은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의 폭음은 이 가슴에 전승절 밤하늘에 우리쳐올린 축포성을 감회깊이 추억케 하고 있다.

1953년 7.27의 승리가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은 사변이었다면 오늘의 7월 사변은 미제를 영원한 멸망의 나라에 처박는 최후승리의 대사변인 것이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는 것은 조선민족의 빛나는 전통이다.

백두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셔 동방의 핵강국의 위용을 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의 7월만이 있을 것이다.

전쟁로병 송영순

무엇이나 바라고 희망한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운명은 남이 지켜 주지 않으며 불패의 국력 또한 하늘이 주는 신비스러운 힘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이번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탁월한 수령, 위대한 령장만이 국력을 결정하고 백전백승을 안아온다는 것을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오늘의 이 승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단결의 힘, 자력자강의 불가항력적힘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이다.

동방의 위대한 핵강국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만리마선구자대 회장을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겠다.

평양고무공장 직장장 김철수

미국이 《독립절》에 밝은 《선물보따리》

그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가 건립된 날이나 독립을 선포한 날을 큰 명절로 쇠고 있다.

그러나 2017년 7월 4일, 《독립절》을 미국은 가장 무서운 공포와 불안속에 맞이했다.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의 시험발사가 완전 성공한 것이다.

미국이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와 전율, 쓰디쓴 참패를 저들의 땅덩어리에서 맛보게 하려는 공화국의 단호한 격멸의지가 결코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님을 공화국은 세계의 면전에서 대륙간탄도로켓의 장쾌한 퇴성으로 장엄히 선언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미국인들이 매우 불쾌하였을 것이라고,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보따리》가 딱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들을 자

주 보내주자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었다.

《독립절》에 미국이 받은 《선물보따리》.

그 《선물》은 감히 우리에게 대한 침략기도를 버리지 않고 분별없이 날뛰던 가차없이 미국땅을 통채로 날려 버리려는 우리 공화국의 최후경고이며 제국주의 운명에 멸망을 선언하는 최후승리의 선언이다.

200여차례나 《독립절》을 맞이했지만 이런 큰 《선물보따리》를 받은 적이 없는 미국으로서 이제 저들의 머리에 떨어질 징벌의 로켓들에 대한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속에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제가 받는 응당한 대접이다. 원래 미국의 《독립절》이라는 것은 침략과 약탈의 더러운 피로 생겨난 것이다.

16세기부터 북아메리카의 동해안지역을 점령한 미국식민자들은 인디언들을 멸살한 피바다위에 대서양쪽의 13개 주로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포하였던 것이다.

그 과정은 원주민인 인디언들에 대한 살륙의 과정이었다. 결국 인디언들을 거의 전멸시키고 그 시체 위에 나라를 세운 흠혈국의 나라가 미국이다. 침략과 약탈, 살인으로 생겨나고 비대한 미국은 조선민족의 재생의 날인 해방의 8.15를 국토통일로 이어지게 한 장본인이고 우리 겨레가 이날이때까지 항시적인 전쟁위험속에서 살게 만든 용서 못할 죄악을 가지고 있다.

최근 지은대로 간다고 그 수많은 미국이 《독립절》에 핵과 대륙간탄도로켓을 쏘는 조선민족에 의해 벌을 토포받게 된 것이다.

경축의 분위기가 아니라 공포의 분위기에 보낸 미국의 《독립절》.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강화할수록 그것은 저들의 파멸을 더욱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친미굴종행각, 동족대결행각

지금 남조선당국은 얼마전에 있었던 집권자의 미국행각을 두고 《전례 없는 환대》니, 《예상밖의 큰 소득》이니,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였다》느니, 《기대 이상의 성과》니 하고 광고하고 있다.

미국상전에 대한 비굴한 아부아침과 구걸로 얼룩진 친미굴종행각, 동족대결행각이 어떻게 《큰 성과》이고 《큰 소득》으로 될 수 있는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조국통일은 철두철미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통일론의 상대는 미국도, 다른 외세도 아닌 동족이다. 우리 민족의 강성과 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세는 이 시각도 친미반통일세력을 동족과의 대결에 부추기며 조선반도를 가니속에 밀어넣으려 최후발악하고 있다.

하지만 해결을 기다리는 천사만사를 제쳐두고 미국상전에게 먼저 찾아가 《위대한 한미동맹》

이 자신의 《뿌리》이고 그것이 있어 오늘이 있다느니 뭐니 하며 온갖 추태를 다 부리다못해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하니, 대화를 해도 미국의 승인하에서 하겠다니 하고 떠들어대었으니 이보다 더 비굴한 굴종과 예속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리명박, 박근혜 《정권》 근 10년간 북남사이의 대결이 최극단으로 간것은 보수집권세력이 걸으므로는 《흡수통일》의 망상을 버리지 않고 《북핵포기》를 떠들며 공화국에 대한 극악무도한 체제전복책동에 미쳐돌아간데 주요한 원인이 있다.

현실은 극도의 무능과 약정, 매국배족적망동으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근혜당을 대신하여 새 《정권》이 들어섰다고 하지만 통일문제와 북남관계를 대하는 태도에서 달라진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굴종하면 일시적으로 외세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손에서 찌꺼기를 얻어먹으며 쉽게 살아갈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후과는 돌이킬 수 없고 민족의 리익과 겨레의 운명이 칼질당하며 더우기 이 땅에서 분렬의 비극은 언제 가도 끝장날 수 없다.

민족자주는 통일문제 해결의 핵이며 열쇠이다. 남조선당국이 미국을 하내비처럼 섬기며 민족공동의 재부나 다름없는 동족의 정당한 자위적행 무력에 대해 결고들며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고있으니 북남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지금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성과》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광고하고 있지만 남조선 각계는 집권자의 미국행각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미국의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북인권문제》까지 운운한것은 남북사이에 대화는커녕 판

계악화만을 불러올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열백번 《정권》이 교체되고 누가 권력의 자리에 들어왔든 외세의존정책이 민족우선정책으로 바뀌지 않는 한, 승미사대의 구태가 민족중시로 바뀌지 않는 한 기대할것도, 달라질 것도 없다.

우리 겨레는 외세추종과 내미굴종을 일삼으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섬겨바쳐온 매국역적들을 결단코 용납치 않았으며 준엄한 철추를 내리었다. 악명높은 《유신》독재자의 비참한 최후가 그러하였고 그뒤를 이었던 군부독재자들과 박근혜역도의 종말 또한 그러하였다.

이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초불민심이 넘겨준 권력을 제멋대로 람용하면서 친미굴종의 행적부러워 《대통령》과 미국의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북인권문제》까지 운운한것은 남북사이에 대화는커녕 판

미국을 믿고 날치다가는...

공화국의 대륙간판도로케트 《화성-14》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에 기집한 남조선당국이 지금 전례없는 대결소동을 꾸며며 물불도 가리지 못한채 헤덤비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북의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한다.》느니,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련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속에 단호히 대응할것》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외교부, 통일부의 관계자들도 줄줄이 나서서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정면위반》이니, 《국제사회와 상응하는 조치의 취지》니 뭐니 하는 악담을 해대며 불에 덴 소처럼 날뛰고 있다. 특히 국방부자들은 감히 공화국의 최고준엄까지 결고들며 《막무가내식 도발》이니, 《헛된

망상》이니, 《과멸에 이르게 될것》이니 뭐니 하는 극악한 《대북 규탄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는 놀음까지 벌려대었다.

한치알도 내다볼줄 모르는 열간망동이, 극악한 사대매국세력의 가공스러운 추태가 아닐수 없다.

명백히 말하건대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최후관문인 대륙간판도로케트 《화성-14》형 시험발사의 빛나는 성공은 주체조선의 불패의 국력과 무진막강한 자립적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일대 시위이며 세기를 두고 강위력한 국방력을 갈망해온 공화국의 력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으로 된다. 공화국은 핵무기와 함께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판도로케트를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으로서 미국의 핵전쟁위협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민족사의 특기할 대경사에 같이 기뻐하지는 못할망정 주먹질을 해대는것은 민족의 힘과 존엄이 무엇이고 조선반도의 평화가 어떻게 지켜지는지도 모르는자들의 무지하기 짝이 없는 반민족적추태이다.

더우기 하내비처럼 섬기던 미국도 제머리우에 언제 핵불소나기가 쏟아질지 몰라 제정신이 아닌 때에 감히 공화국의 최고준엄까지 결고들며 대결망동을 부리는것은 천벌맞을 망동이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을 믿고 날치던 때는 영원히 지나갔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세상이 달라진지도 모르고 백두산총재의 조준경안에서 함부로 실체대다가는 만회할수 없는 줄경을 치르려 한다는것을 남조선당국은 명심해야 할것이다.



제 무덤에 킁킁거리고 악취를 풍기려는

얼마전 남조선군부호전광들과 여야당의 인물들이 남조선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제2연평해전 15주년기념식》이라는것을 벌려놓고 반공화국대결의식을 극구 고취해나섰다.

가관은 세상에 이미 알려진 《연평해전》의 패배에 대해 한줄도 모르고 저들의 《승전》으로 이어진것처럼 회첩계 놀아댄것이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이라는자는 《서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의 경비정의 기습공격으로 제2의 연평해전이 발발했다.》, 《그러나 우리 해군은 〈한국〉의 령해를 사수하고 승전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췌쳐대었다. 그런가 하면 야당것들은 《평화를 파괴하는 어떤 도발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느니, 《북의 어떤 군사적도발과 위협에도 엄정하고 단호한 태도로 대응할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동족대결망발을 마구 늘어놓았다.

삶은 소대가리가 다 웃을 회비국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이른바 《제2의 연평해전》이라고 떠들어대는 지난 2002년 서해무장충돌 사건은 6.15통일시대의 흐름을 막아보려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의 무분별한 도발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

당시 극도의 도발광기에 들뜬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은 미국의 부추김일에 공화국의 거두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끝끝내 공화국의 신성한 령해에 기여들었다가 조선인민군 해군의 원격격에 얻어맞지 않으면 안되었다.

동족대결에 미쳐 서 뿔리 도발을 걸었다가 영용한 공화국군대의 불벼락에 얻어맞고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던자들이 이제 와서 그 무슨 《승전》이니 하 《응징》이니 하 고 고아대며 허세를 부리는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이번에 요란한 반공화국광대극을 또다시 벌려놓은것은 공화국의 무자비한 보복에 난신창이 된 수치스러운 패배를 가리워보려는 어리석은 추태에 지나지 않는다.

동족대결광신자들의

못된 버리지 장판바다에서도 모로 간다고 남조선에서 박근혜-최순실추문사건의 주범들이 재판정에 서 몸상대를 구실로 추접스럽게 놀아대어 민심의 눈살을 찌뜨리게 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는 재판과정에 제년의 퇴물혐의에 대한 증거들이 론박할 여지없이 드러나자 정신적 충격과 허탈감에 빠진 나머지 책상우에 코를 바고 꼬꾸라졌으며 《건강상태》를 걸고 주 4회씩 진행하던 재판회수를 3회로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순실녀는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안에서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고용변호사를 내세워 《생명이 중요하다.》느니, 《불필

요한 심문사항을 제한해 달라.》느니 뭐니 하며 불손하게 놀아내고 있다.

한편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은 수인복대신 환자복을 입고 재판정에 나오면서 《심장병이 위중하다.》느니, 《우사하지 않고 밖에서 죽으면 된다.》느니 하는 엄살을 부리는가 하면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은 허리병으로 고통을 겪는다고 하면서 재판과정에 앉았다 일어섰다가는 추태를 부려대었다.

권력의 자리에 들고앉아 수천만의 인민들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것도 모자라 눈을 희뜩거리며 대기업들에서 천문학적액수의 돈을 서슴없이 뜯어내던 서울푸르딩딩하던 그 기상은 다 어디 가고 더러운 잔명을 유지해보겠다

고 해피망측하게 놀아대는 박근혜일당의 추태는 역스럽기만 하다.

오죽하면 재판정에 방청으로 참가한 사람들과 TV로 그것을 지켜보던 각계층이 《서풍짜리 연극》, 《보기도 지겹다.》며 박근혜일당에게 분노와 저주의 목소리를 높이고있겠는가.

전대미문의 특대형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처박힌 박근혜일당이 재판과정에 벌리는 눈꼴사나운 짓거리는 여론과 민심의 동정을 사 재판을 지연시켜 중형을 면해보려는 어리석은 잔꾀에 불과하다.

죄를 저질렀으면 수감을 차고 벌을 받는것이 마땅하다.

릉지처참당해도 할말이 없는 박근혜와 그 수하족

당장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최근 남조선에서 쌍둥이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부리는 추태가 만사람의 비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달 26일에 새 당대표를 내세운 《바른정당》이 이어 《자유한국당》 것들도 지난번 《대선》에서 패배한 홍준표를 당대표로 내세우고 저마다 《보수적 통》임을 자처하는 낮뜨거운 광대극을 벌려놓고 있다.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바른정당》을 향해 《기생정당》이니 뭐니 하고 헐뜯는 한편 보수의 《아성》이라고 하는 대구, 경상북도지역의 민심을 끌어당겨보려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고 있다.

《바른정당》 패거리들은 그들대로 저들이 《보수의 본진이 될것》이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에 대고 《참혹한(대선) 패배에도 알량한 기득권만 바라보고 당권

을 면해보려는 어리석은 잔꾀

속들이 특대형범죄를 저지르고도 꼬물만 한 반성도 없이 추접스럽게 놀아대는것은 초불민심에 대한 우롱이며 도전이다.

박근혜일당이 일본의 《록키드 마린》사건의 1심재판은 7년이나 걸렸다고 떠들며 시간을 끌수록 드러나는것은 박근혜-최순실추문사건의 론박할수 없는 죄상뿐이다.

박근혜일당이 히스테리적인 추태를 부릴수록 남조선민심은 그것을 더러운 목숨을 부지해보려는 마지막발악으로밖에 보지 않는다.

이미 처박힌 무덤에서 박근혜와 그 족속들이 솟아날 길은 없으며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칠수록 세상의 조소와 민심의 격분만을 자아낼뿐이다.

어리석은 일이 없다.

한바리에 실어도 짝지 않을 인간추물들의 집합체, 민심의 심판을 받은 력사의 퇴물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당장 해체되고 매장되어야 마땅하다.

본사기자 김철민

만평 마지막 순간까지

이러한 인간추물집단들이 서로가 보수의 《적자》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물어메치고 보수세력을 규합하여 권력의 자리에 다시 기여올라가보려고 발버둥질하고있는것은 세상사람들을 웃기는 정치만화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의 민심은 이미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온갖 부정부패와 추문으로 남조선사회를 더